

군산시-타코마시 자매결연 40주년 기념행사

LA 한인축제 우수 농수산물 엑스포 참가 위해 미국 방문... 간담회 후 기념식수

지립도시 군산시와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가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해 상호간에 우호협력을 재확인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타코마시와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LA 한인축제 우수 농수산물 엑스포 참가로 미주 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타코마시(시장 우다스)의 초청으로 타코마를 방문 중인 강임준 군산시장 일행은 타코마시 시장 일행 등과 함께 지난 21일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해 간담회를 갖고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기념식수 행사도 가졌다.

지난 4월 군산시를 방문한 바 있는 우다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양 도시의 교류가 이제 심은 나무가 커가는 것처럼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의 교류 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 1979년부터 교류를 시작한 군산시와 미국 타코마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분야별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했으며 민간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단체 간 교류 방안도 논의했다.

강임준 시장은 타코마에 있는 아태 문화센터에 들러 워싱턴 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산시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양 도시 교류를 위해 헌신해 준 교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교민들도 양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문화 분야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미국을 방문 중인 강 시장 일행은 현지에서 열리는 제13회 LA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에도 참석하고 현지 코트리아무역관, 한국관광공사 LA지사 및 KBS America 등을 방문해 참가업체에 대한 각별한 지원 등 군산 지역 업체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엑스포에는 효송그린푸드, 바다향, 아리울수산, 풍년보리원, 응



지립도시 군산시와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가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해 상호간에 우호협력을 재확인했다.

고집, 진포상회 등 6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군산시는 2009년부터 꾸준히 참가해 LA농수산물 엑스포 행사장 현장

판매에서도 교민들에게 맛이나 품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대, 지역민과 함께하는 황룡축제 개막

27일까지 개최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황룡 페스티벌 위크를 정하고 23일 황룡 학술문화제의 막을 올렸다.

황룡페스티벌 위크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올해 행사는 그동안 학과 또는 단과 대학별 자체행사로 진행되던 행사들을 학교 주관의 공식행사로 준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학내 구성원 전체가 즐기는 문화공유의 장을 마련해 기존의 가을축제인 황룡축제에 신설된 황룡학술문화제를 더해 행사의 내실을 기했다.

23일 황룡학술문화제에 이어 25일에는 황룡축제가 사회과학대학 운동장에서 개막해 2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대학가을축제인 황룡축제에서는 인기가수 양다일(25일), 리블리즈(26일), 소란(27일)이 초청돼 가을 캠퍼스 정취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광병선 총장은 "그동안 국내 대학의 축제는 학생들의 전유물처럼 생각돼온 점도 없지 않지만 대학 축제는 교수와 학생, 직원이 모두 아우러지는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축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축제를 하나로 모아 강의실 밖 학업분위기를 고양하고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확대하는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다문화이주민+센터 개소식 개최

다문화가족·외국인에게 한 곳서 서비스 제공

익산시는 23일 익산역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다문화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 행사는 다문화가족의 식전공연과 개회식, 내빈소개, 경과보고, 정현을 시장 인사말씀, 축사, 테이프 커팅식, 센터 순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다문화이주민+센터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외국

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고용 허가, 통역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치됐다.

센터는 전북 유일 공인통합형 건물로 익산시를 비롯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익산노동자의 집,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모두 16명의 직원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통·번역사가 상주해 고충상담

및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같은 공간에 있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은 북카페와 정보검색실, 교육실, 휴식공간, 수유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의 자조모임이나 자녀교육 및 상담,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이 다문화이주민+센터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다문화가족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여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현 기자

태풍피해농가 복구대책 마련 지시

정현을 시장, 비상근무 직원 노고치하

정현을 익산시장이 2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농가를 조속히 파악하여 복구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축산과에서 초기대응을 잘 해줬다고 칭찬하며 앞으로 상황 전개를 주시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현을 시장은 "태풍 '타파'가 지난 번 태풍 '링링'이 지나간 지 열흘남짓 지난 시점에 왔다"고 말하며, "계속되는 비상근무와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까지 직원들이 연일 고생이 많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연달아 온 태풍으로 지역 농가들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 농가들의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여 복구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 시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행히 우리시는 축산과에서 초기대응을 잘 해줘 아직까지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칭찬하며, "앞으로도 상황 전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차단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익산=장인현 기자

익산시, 주거환경 조성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익산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기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지 내 도로 포장공사와 도장, 방수공사 등 아파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익산시청 주택과(☎ 859-5936)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7일부터 21일 까지 14일간이며, 신청서는 익산시 홈페이지(정보마당)에서 다운로드 하면 된다.

지원단지 선정은 현장조사 실시 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익산=장인현 기자

군산의료원 혈관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 개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원장 김영진)은 혈관센터(센터장 전승진) 개소 기념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난 21일 의료원 1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혈관센터 전승진 센터장(순환기내과)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심장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정의-전남대학교병원 안영근 교수 ▲관상동맥 조영술 시술시 주의사항-원

광대학교병원 윤경호 교수가 강의가 진행됐다. 전승진 센터장은 "10월 중에 있을 혈관센터 개소식을 기념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해 매우 기쁘다"며 "지역민들의 심장 건강을 위해 심장질환의 예방과 조기진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문화된 진료로 환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